

# 조창환

CHANG - HWAN CHO

b. 1964

Korean Visual Artist

Painting · Drawing

## EDUCATION ·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B.F.A. i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 EXHIBITIONS · 전시이력

### SOLO EXHIBITIONS · 개인전

2025

- 제16회 숨 — 투명한 시간 *Breath: Transparent Time* AP갤러리, 서울
- 제15회 조창환 초대개인전 필랩갤러리, 용인

2024

- 제14회 숨&숨 *Breath & Breath* 나노갤러리, 청주
- 제13회 숨 묵묵한 *Breath & Silence* 반달갤러리, 성남

2023

- 제12회 숨전 프린트베이커리 롯데월드타워, 서울
- 제11회 숨 이마주갤러리, 서울

2022

- 제10회 *BREATH* 더스타갤러리, 서울

2021

- 제9회 J증정갤러리, 서울
- 온라인 개인전 아트허브 온라인갤러리

2020

- 제8회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18

- 제7회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2014

- 제6회 성남아트센터, 성남

2013 · 2012

- 제5회 / 제4회 박정우갤러리, 청풍

2010

- 제3회 인사아트센터, 서울

1998

- 제2회 관훈갤러리, 서울

1996

- 제1회 세계화랑, 서울

### GROUP EXHIBITIONS · 단체전

2023

- 성남의 발견전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 숨 프린트베이커리 롯데월드타워, 서울

2022

- 예술증후군 — 증상과 치유 인사갤러리, 서울
- 태양을 품은 이의 호흡 스페이스유, 서울
- 성남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성남
- 성남의 얼굴전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2021

- 그림같은 집 KT&G 상상마당 홍대, 서울

2020

- 아바니전 아바니 센트럴 부산

2015 – 2011

- 성남미협전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성남

2014 · 2012

- 성남의 얼굴전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2011

- 백인백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1세기 현대미술 조명전 인천문화회관, 인천

1984 – 2010

- 재미회전 제천문화회관, 제천

2010

- 꽃을 그리다 총무아트홀, 서울

2009

- 한국수채화공모대전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성남

1996

- 강남미술전 포스코갤러리, 서울
- 동아미술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5

- MBC미술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오늘의 한국미술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93

- 서울에서의 만남 공평아트센터, 서울
- 서울현대미술제 서울미술회관, 서울
- 한국현대판화 감성세대전 고도갤러리, 서울

#### 1992

- MESSAGE 579 인데코화랑, 서울
- 회화 3인전 인데코화랑, 서울

#### 1991

- 끝값전 청남미술관, 서울
- 청년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84 홍익동문전 관훈미술관, 서울

### AWARDS & RECOGNITION · 수상

- 청년미술대전 입선 *Selected, Young Artist Exhibition*
- MBC미술대전 입선 *Selected, MBC Art Grand Exhibition*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Selected,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 동아미술대전 우수상 *Excellence Award, Dong-A Art Festival*

### ARTIST STATEMENT · 작가 노트

조창환 작가는 생명의 본질적인 요소인 "숨"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호흡을 시각적·촉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숨이란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는 이를 "시간의 공간화" 또는 "촉각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전통 빗자루에서 고른 한 가닥의 싸리나무를 도구로 삼아 한 올 한 올을 화면 위에 쌓아올린다. 가까이에서 보면 섬세한 선들이 생동하고, 멀리서 보면 화면 전체가 차분한 숨결로 다가온다. 이 다층적 감각의 변주는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진다.

Cho Chang-hwan visually manifests "breath" — the essential element of life. His work gives tactile form to breathing through the "spatialization of time," using a single Lespedeza stalk to layer strokes one by one onto the canvas, mirroring the ceaseless rhythm of respiration.

Up close, delicate lines move as if alive; from a distance, the composition settles into a calm, quiet breath. These layered sensory variations invite new interpretations and lead to a deep reflection on the life we all share.